

# 美, 구족계 계단 설립을 꿈꾸다

### 워싱턴주 뉴포트 스라바스티 대중들...단일 계단 서원 툽텐 초드론 스님 등 구족계 수계자만 5명...모두 순수 미국인

미국인들이 명상에 주목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불교도가 많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하버드대 '다원주의 연구계획(Pluralism Project)'에 따르면 미국의 불교도는 300만여 명 정도로 추산된다. 사찰의 수 역시 적다. 이는 대부분의 불교 수행자들이 홀로 활동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에스에이투데이(USA TODAY) 지가 5일 "미국에서 태어나 성장해 불자가 된 미국인 중에서 대만 등지에서 구족계를 받은 비구니 스님의 불교 공동체가 단일계단의 꿈을 키우고 있다"고 보도해 주목된다.

미국 워싱턴주 뉴포트(Newport WA)의 스라바스티(Sravasti Abbey)는 5명의 비구니 스님들이 수행하는 사찰이다. 2만 1000명이 거주하는 마을 외곽에 자리한 스라바스티는 미국 서부지역 사찰 가운데 지역 주민들과의 유대가 가장 깊은 사찰로 꼽힌다.

스라바스티의 공식 법회인 상카라마스(sanghakarimas)며, 2개월마다 마련되는 포사다(posadha: 포살) 법회는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받고 있고, 지역 대표 기업 링크렛(LinksYet)의 후원도 받고 있을 정도다.

"우리가 이곳에 사찰을 처음 세웠을 때 3명의 대중이 있었는데, 저와 두 마리 고양이들이죠"라는 툽텐 초드론(Thubten

Chodron 스라바스티 주지) 스님은 "지금은 두 마리 고양이들과 12명의 대중이 있는데, 그들 중 다섯 명이 대만에서 구족계를 수지한 비구니 스님"이라며 "서양의 중심인 미국에서 '대단한 일'이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시애틀(Seattle) 소재 다르마 교우회 재단(Dharma Friendship Foundation)에서 10년간 대중을 가르치며 수행에 몰두했던 툽텐 초드론 스님은 뉴포트에서 티베트 불교공동체를 개척하길 서원하며, 티베트 불교계로부터 구족계를 수지하고자 했다. 그러나 상황은 여의지 않았다.

"당시의 미국인 불자들 중 출가를 서원했던 이들은 대만이나 베트남 등지에서만 구족계를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한 툽텐 초드론 스님은 "티베트나 인도에서 출가하길 간절히 바랐지만, 미국인으로서 여행 자체가 용의하지 않다"며 "결국 1986년 대만에서 구족계를 받을 수 있었고, 2003년 워싱턴주 뉴포트에 스라바스티를 개원했다."

당시 대만불교 전통에 따르면 구족계는 각 10명의 비구 및 비구니 스님들이 수행하는 사찰에서 10년간의 수행 과정을 밟아야만 가능했다. 툽텐 초드론 스님은 "미래에는 충분한 수의 비구·비구니 스님이 이곳 스라바스티에서 수행하며 구족계 계단을 봉행하는 날이 있기를 항상 바라고 있



① 툽텐 초이 스님(사진 왼쪽)과 툽텐 지그미 스님은 순수 미국인(U.S.-born) 스님으로, 과거 그들의 경력과 열정을 뒤로한 채 미국 불교계 첫 단일 구족계 계단 설립에 헌신하고 있다.  
② 스라바스티 사찰의 사부대중들

다"고 덧붙였다.

스라바스티의 툽텐 지그미(Thubten Zigmie, 60) 스님과 툽텐 초이(Thubten Chonyi, 58) 스님 지난해 10월 대만에서 구족계를 수지했다. 스님들은 사미니(sramanika)를 거쳐 구족계를 수지하는 과정에서 '일상을 떠난 출가자로서 툽텐 초드론 스님과 함께 미국에서 첫 구족계 계단을 만들어보자'는 서원을 세웠다.

툽텐 지그미 스님은 수간호사 교육과정을 밟던 중 정신병리학과 명상의 상관관계를 공부하다 1988년 발심했다.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 간호사로서 삶이 출가의 기쁨이 됐다"는 스님은 "수간호사가 좋은 직업이긴 하지만, 그보다는 깨달음을 갈구하고, 그 세계로 뛰어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고 스님을 말했다.

툽텐 초이 스님은 툽텐 초드론 스님을 은사로 모시고 15년간 스님이다. 그녀는 다르마 교우회 재단에서 초드론 스님을 처음 만났다. 당시 툽텐 초이 스님은 '레이키 치유 예술 센터(Reiki Healing Arts Center)'를 공동 소유자로, 툽텐 초드론 스님을 후원자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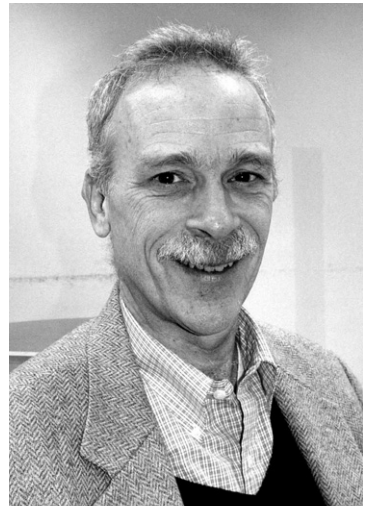
"2007년 출가한 지금 너무 행복하다. 과거의 일도 좋지만, 툽텐 초드론 스님을 모시고 불법을 실천하는 삶 속에서 인간이 배울 수 있는 최고 가치를 흡수하고 있다"며 "순수 미국인(U.S.-born)인 출가자들이 모여 구족계 계단을 만드는 일에 혼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 10여년간 원효사상 심취해 번역 저술

### 세계의 불교학자(18)

#### 찰스 몰러 日 동경대 교수



서구권 해외불교 학자들이 중국·일본·남방 불교를 연구하는 대신 한국불교를 연구하는 학자가 있다. 찰스 몰러(A. Charles Muller·61) 교수다.

미국태생인 찰스 몰러는 현재 일본 동경대 인문사회 대학원 교수직을 맡고 있다.

찰스 몰러 교수는 10여 년간 원효 사상에 빠져 원효의 여러 저술을 영어나 일본어로 된 논문으로 발표했고 조선 시대 불교 서적을 영역해 발간했다.

그는 특히 동아시아 고전작품에 관심을 갖고 서구인들을 위해 번역작업을 하고 있다. 그가 번역한 동아시아 종교·철학 논문과 학술서들은 모두 인터넷으로 찾아볼 수 있게 했다.

또한 찰스 몰러는 조계종이 불경을 영어와 우리말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했던 한국전통서간행위원회의 '원효 탐'에 속해 원효 대사 저작의 영어 번역을 맡기도 했다.

몰러 교수는 《원효의 마음 철학(Wo nhyo's Philosophy of Mind)》(완벽한 깨달음의 금강경: 명상에 대한 한국불교 안내서(The Sutra of Perfect Enlightenment: Korean Buddhism's Guide to Meditation, with the Commentary by Kihwa)) 등 5권의 저서와 25편의 논문·저술을 펴냈으며 전자서 사전인 《한·중·일-영어 사전(Muller's CJK-English Character Dictionary)》을 편찬했다.

몰러는 《원효의 마음 철학》에서 "원효는 명백한 현실 속에서 간절한 열정이 어떻게 깨달음을 가져 올 수 있는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며 "그는 불교 본연의 사명이 성취되려면 어떻게 수행해야 할 것인지 생각했고, 최소한의 검소한 생활이 진정한 발심과 수도라 보고 시간을 아껴 젊은 시절에 마음을 내어 부지런히 수행함을 강조했다"고 설명한다.

뉴욕에서 태어난 찰스 몰러는 물리학자인 부친 밑에서 자라 동양사상과 종교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됐다. 의과대에 진학했지만 자신의 참모습이 어떤 것인지 찾고자 젊은 시절 대학을 관두고 10여 년 동안 동양사상을 좇아 전세계를 다니며 수행했다.

그러나 몰러는 27세 때 미국 스토니브룩주립대에 진학해 그는 성철 스님 제자이자 재미 불교학자인 박성배 교수를 만나 원효 사상을 배우면서 한국불교에 심취했다.

찰스 몰러는 원효 대사에 대해 "통일신라 당시는 동아시아를 지배한 중국의 불교가 현장(玄奘) 그룹과 여래장(如來藏)

그룹으로 나누었다"며 "하지만 원효 대사는 열린 마음과 공정한 태도로 중도를 취하면서 부처의 가르침에 충실했고, 오히려 두 그룹을 초월한 사상을 일궈냈다는 점에서 위대하다"고 평가했다.

몰러 교수는 원효 대사의 저서에 대해 "재미있는 텍스트" > 어려운 불교 철학을 명확하게 풀어내는 점 등을 매력으로 꼽으며 "원효 대사가 매우 솔직하고 명석하다는 점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의 저서를 번역할 수록 신이난다"고 말했다.

이후 그는 스토니브룩대 대학원에서 원

### 학창시절 자아성찰 위해 수행

### 조선시대 불교서적 영역 발간

### 조선전기 승려 '기화'로 박사학위

### 20여년간 매일 20분간 참선수행

각경소(圓覺經疏)를 쓴 조선 전기의 승려 '기화(己和)'를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은 뒤 14년간 일본 가쿠인대 교수를 지낸 후 2007년부터 도쿄대 대학원으로 옮겨 연구에 이어가고 있다.

찰스 몰러 교수는 20여 년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20분 간 참선수행을 하고 있다. 2009년 간행위 영역작업의 중추적 역할을 맡을 당시 그는 "경전을 보다 내용이 막힐 때면 책을 덮고 참선을 하곤 했다"며 불교학자도 수행이 필요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2009년 본지와와의 인터뷰에서 "원효와 기화 선사는 완벽한 열린 인식(Openminded)의 소유자이다. 불교 신자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인 원효의저작을 영어로 번역하는 것은 보람있는 일"이라며 "일본과 달리 한국불교는 서구인들에게 덜 알려졌기에 처음부터 정확한 번역이 꼭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나는 기자 oasis1983@hyunbul.com

## 中 1500여 년 전 사찰유적 발견

### 타클라마칸사막 타밀분지에서...초기 불교 연구 기대

1500여 년 전 고대 사찰이 타클라마칸 사막에서 발견됐다고 중국 신화사 통신이 5월 9일 전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발견된 고대 사찰 유적은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래된 불교를 연구하고, 그 초기 모습을 밝혀내는 데 결정적인 자료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3개의 회랑 구조물을 기반으로 높게 세워진 대웅전과 그곳에서 발굴된 대형 좌대는 최소 3m이상의 대형 불상이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이곳에서의 발굴 과정과 그 성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대략 2개월간의 발굴 과정을 밟아야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는 우 신화(Wu Xinhua) 박사는

"이번에 발견된 사찰의 범당은 20세기 이후 타클라마칸 사막에서 발견된 범당 중에서 가장 큰 것"이라며 "회랑구조 건축물은 남북조 시대인 420~589년 사이에 급속히 퍼져갔던 사원건축 양식으로, 이 고대 사찰은 그 당시 세워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우 신화 박사는 현재 중국사회과학원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소속 신장 고고학 발굴팀을 이끌고 있다.

고대 사찰 유적은 타클라마칸 사막 남쪽에 위치해 있는 타밀 분지(Tarim Basin)에서 발견됐다. 이곳은 기원전 3세기 불교국가인 허텐(Khotan·일명 '호탄') 왕국이 번성했다.

사오 후야안(Xiao Huaiyan) 박사는 "불



사찰 유적에서 발견된 벽화

교가 인도에서 전래된 경로와 초기의 모습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최고의 사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사찰 유적에서 발견된 회랑 벽면에는 불족, 불보살 등과 상서로운 동물로 수놓아져 있고, 6세기 이후 사라졌던 그리스-불교미술(간다라 미술) 양식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오종욱 편집위원

## 세계불교도대표회의 열려

세계불교도대표회의(World Buddhist Summit, 이하 WBS)가 5월 8일 스리랑카 콜롬보 벨로 포쿠나 마힌다 라자팍사 공연극장에서 개최됐다. '평화와 공존'을 주제로 열린 이번 WBS에는 29개국에서 500여 명의 스님들이 참여했다.

이날 개최식에서 조직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벨란위라 위마라라탄나 테라 교수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세계 각국의 불교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뜻 깊은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피릿(Pirith: 의식으로 진행되는 불교 음악의 일종)에서는 상좌부, 대승부, 금강부, 한국불교 등의 전통의식이 시현됐다. 오종욱 편집위원



###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아름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돌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전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 열침의효능 헬스벨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복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생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마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썩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썩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가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 \*오심건, 고관절, 당뇨, 전립선
-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